

# 미국, 나일론 카펫에도 9.11 불똥

## 9.11여파 · 공급과잉으로 회복 불투명 ... Dupont의 DTI는 선전 기대

미국은 2001년 경기후퇴와 9.11테러 여파로 인한 불황이 여전한 가운데 나일론 시장이 탄탄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2002년 2월 DuPont은 5개 부문으로 개편작업을 벌여 나일론 및 Polyester 섬유, Lycra 사업을 통합한 새로운 회사 DuPont Textiles & Interiors(DTI)를 2003년까지 출범시키기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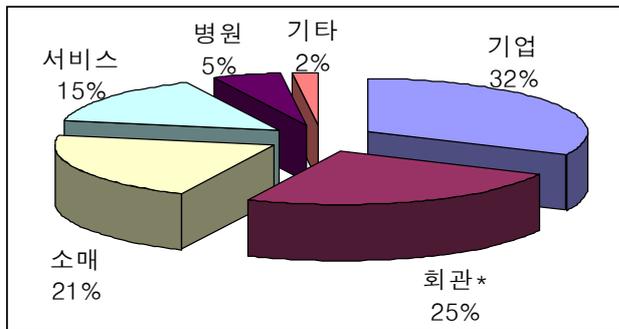
매출액이 65억달러인 DuPont DTI는 Pure Fiber 시장의 3/2, Chemicals의 3/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시장을 주로 공략해 북미시장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익의 52%를 벌어들일 전망이다.

DTI는 델라웨어 Wilmington에 본사를 두고 의류용, 가정·공업용, 바닥재용 섬유 및 실내장식(내장재) 사업과 나일론, Terethane, 폴리에스터 중간체, Specialty 부문과 합작회사를 거느린 중간체 사업으로 나뉘게 된다.

DTI는 2001년 미국의 직물산업이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아시아산 섬유 유입으로 고전해 2003년 전망도 밝지는 않지만 코스트 절감과 다운사이징, 브랜드 가치 향상에 주력해 2003년과 2004년에 높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BASF는 9.11 여파가 장기화돼 나일론 카펫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러 이전 북미 나일론 카펫 시장은 연평균 1-2% 감소했지만 나일론 단섬유 소비는 2% 증가했다. 테러 이후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고 집 가꾸기에 관심을 쏟으면서 가정용 카펫시장은 호황을 누렸지만 상업용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비행기보다 차로 여행하면서 Limited Service Hotel(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렴한 호텔)은 성황이었지만 고급 호텔은 25%, 기업은 30% 매출이 급감했다.

### 나프타 카펫 섬유 시장비중



\* 교육 및 종교 관련시설 포함

자료) BASF

세계 카펫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북미자유지대(NAFTA)는 세계매출의 58%를 점유하고 있고 유럽, 아시아가 각각 28%, 7% 그리고 기타가 7%를 차지하고 있다. NAFTA의 나일론의 수요비중은 가정용이 60%, 상업용 26%, 수송산업 5%이며 카펫섬유 수요비중은 기업이 32%, 서비스분야 15%, 종교 및 교육용 회관 25%, 의료분야 5%, 소매 21%, 기타 잡화가 2%이다.

나일론 카펫은 세계 수요신장률이 2%이고 북미 카펫 시장에서는 약 60%를 차지하며 가정용 Polyester(10%), 일반용 PP(28%)보다 선호되고 있는데 BASF는 그 까닭을 나일론이 Olefin보다 교체주기가 길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유럽에서 15%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울섬유도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했다.